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14기 10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3.26목

왜 우리는 금속노조를 떠났고, 왜 다시 돌아왔는가 연대의 경험이 만든 선택



지난 소식지 6호를 통해 우리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자본의 노조 파괴 공작으로 지부를 떠났던 발레오만도, 일진베어링, 플라스틱옴니엄(구 이너지)에 이어 광진상공까지 다시 경주지부의 깃발 아래 다시 모인것.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복수노조의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며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현장은 더욱 불리 해졌고, 사측은 이를 이용해 민주노조를 흔들며 현장을 장악하려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발레오만도 사측은 경비, 식당, 외곽부서 인력을 아웃소싱하려 했다.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었기에, 노동조합은 이를 막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고 사측은 이를 거부하며 직장폐쇄를 진행했다.

공장은 봉쇄됐고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쫓겨났으며 현장은 멈춰섰다. 노동자들은 생계의 압박 속에 버텨야 했다.

직장폐쇄는 약 100여 일 만에 해제됐지만 이후의 상황은 분명하게 달라졌다. 노동조합은 약화됐고 기업별노조 전환과 금속노조 탈퇴로 이어졌으며, 자본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금속노조를 현장에서 분리시켰다.

여기에 더해, 같은 해에 광진상공과 플라스틱옴니엄, 2011년에는 일진베어링이 금속노조를 탈퇴하면서 조직은 분열됐고 현장은 빠르게 약화됐다. 모두가 경주지부는 끝났다 말했지만, 현장은 무너지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발레오만도 직장폐쇄 이후 해고 노동자들이 대법원 승소를 통해 복직하기까지 7년7개월이

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장기투쟁으로 어려움을 겪던 해고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생계비 지원을 결의했고, 조합원들은 1인당 매월 1만원씩을 기금을 모아 해고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지원은 해고자들이 투쟁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으며, 연대가 현장을 지키는 힘임을 보여줬다.

현장은 이 과정을 통해 고립되면 무너지고, 연대하면 버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흐름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발레오만도, 일진베어링, 플라스틱옴니엄이 차례차례 복귀하기 시작했고 올해에는 광진상공까지 금속노조로 복귀했다.

이는 단순한조직 변경이 아니라 기업노조, 어용노조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연대 없이 현장을 지킬 수 없다는 깨달은 현장이 경험을 통해 내린 판단이었다. 단결만이 현장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기에, 경제가 얼어붙고 조합원들의 미래가 흔들리는 지금, 금속노조로의 복귀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흐름이다.

현재 현대모비스 램프사업부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이 문제는 특정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경주 전체의 고용과 물량,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구조조정은 다른 사업부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경주지역 전체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0년과 지금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위기 속,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산업전환이라는 다른 이름일 뿐이다.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을 분리하고 노동자를 배제하는 방식은 과거에도 반복되어 왔다.

발레오만도 사태 이후 다른 사업장으로 문제가 이어졌던 경험을 비춰본다면, 현대아이에치엘지희의 문제 역시 경주지부 전체로 이어질 수 있다.

더해서 이번 램프사업부 매각 문제는 거대한 현대모비스 원청을 상대로 한 싸움이기도, 각 사업장이 아닌 지부, 나아가 금속노조 전체의 힘으로 대응해야 한다.

개별 사업장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무너진 상황에서,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연대를 통해서 라는 것을 알고 있다.

4,500 조합원의 단결이 필요한 때이다. 함께할 때만 우리는 스스로 현장을 지킬 수 있다. 경주지부의 단결된 힘으로 자본의 공세에 맞서고 노동자의 일터를 지켜내는 투쟁을 이어가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